

[지상 일대일강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김현수 권사 (일대일 사역자) / 2002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즉 죄 용서함을 받았고 지금 당장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 나라에 있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앙 상태를 말한다. 구원의 확신은 '뜻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믿어라', '구원받아라'고 으박질러서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식으로 알고(지), 그런 후 감정적인 반응이나 체험을 하고(정),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마치 약혼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정) 주례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에 대해 '예'라고 의지적 결단으로 대답하는(의) 과정을 통해 결혼이 성립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마 14:3)라며 예수님 자신과 그분을 따랐던 주위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에서 예수님은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는 선생, 복음 전도자, 영육 치료자의 일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여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여야 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소유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영유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막15:15, 갈3:13. 요1:29, 히9:22, 레17:11, 레4:13~21 등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우리 죄 사함의 관계에 대해 도움을 준다. 구우너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주권자이심, 영원성, 전지하심, 어디에든 계심(무소부재), 전능하심, 불변하심 등 하나님만 가진 성품과 인자하심, 성실하심, 의로우심, 공정한 판단 등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이 있다. 하나님만 가진 성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잘 지키게 하며,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들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흠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일대일 양육 때 각 성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나누면 신앙과 실제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온다.

* 출처 - 온누리신문